

남원, 내년 국가예산 증액 반영

도자전시관 건립, 유소년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 최경식 시장 매주 국회 방문 및 이용호 의원 협력 대응 큰 몫

남원시가 내년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증액 반영시켰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시가 증액 반영을 건의한 10개 사업, 국비 82억원이 최종 증액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은 △도자전시관 건립(총사업비 170억원) 국비 1억원 △유소년 스포츠복합센터(남원) 건립(490억원) 20억원 △웃을칠목공예 전시관 건립(150억원) 3.6억원 △근로총양산 산업 거점단지 조성(200억원) 5억원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83억원) 3억원 △야영인공지구 하수관로 정비(195억원) 18.6억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인상센터 건립(190억원) 20억원 △보절과출소 재건축(8.1억원) 0.47억원 등이다.

도자전시관 건립 사업은 유구한 도자기 역사와 일본 사쓰마 도자기의 본

향으로서의 남원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예술적 자산을 보존 전시하기 위한 도자 전시 특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확보한 윗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도 증액 반영되었으며, 두 시설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이 집대성되는 한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유소년 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유소년 선수단 육성을 위한 첨단 훈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곤충 양산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최종 증액 반영됨에 따라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정부의 생활폐기물 적재

금지정책을 이행하고 자원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내년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강화된 가운데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부처와 기재부, 국회, 예결위원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활동을 이어온 결과로 보인다.

최경식 시장은 매주 서울 국회와 세종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에 나서며 관계자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치면서,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예산결산안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포함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응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해 주신 많은 예결위원과 부처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확보한 예산을 통해 민선8기 발전하는 남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선정

시, 환경부 주관 총 사업비 444억원 확보... 전북 '유일'

남원시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주관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선정돼 444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관로 및 노후 재질관 등 지방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관망의 블록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누수 저감을 통한 효율적인 수량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붉은 수돗물과 녹물사태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20년 이상된 노후상수관로로 인해 수질악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부족, 수도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2021년 수립한 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남원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가 267억원으로 반영된 상황이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국회 등 관련기관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였고 이번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 용역 결과보다 16% 증가한 177억을 추가 확보해 총 44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2029년까지 444억원을 투입해 수질 안정성을 저해하는 노후 상수관로 및 노후 재질관 정비 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지역을 여러개로 구분하여 수압, 수질, 수량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복잡한 기존 상수도관망체계를 지역별 블록시스템으로 구축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전국 가족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순창군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전국 가족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6일 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 중 상위 10%에 속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순창군 가족센터는 2019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진한 결과 2020년 여성가족부 우수기관 선정 후 연이은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특히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 가족센터 문정현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순창군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써주신 가족센터 직원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센터는 순창군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아이돌봄 지원사업, 교류소통공간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민 내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 본격 사용

순창군민 내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 본격 사용 기준순창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이 드디어 내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의회에서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구당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공동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을 위해 임실군과 함께 연초부터 수차례 남원시를 방문해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사항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3개 지역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간판개선사업 선정

임실군의 중심지인 임실읍 시가지가 아름다운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9,8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수면 오수리에 이어 2번째 간판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간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친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군은 임실봉황인재화당 교차로~성거리 2.44km 구간의 건물 86동, 158개 업소를 대상으로 5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간판 교체 및 건물 입면 정비 등 가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임실읍 중심거리인 봉황로 일원 노후 상가의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간판을 설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봉황로 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코로나 선별진료소 이달 말 운영 종료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임실군이 그동안 2020년 1월 20일 운영을 처음 시작해 4년여(1,441일)간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책임져 온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말일로 종료한다.

앞으로 PCR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을 찾아야 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거나 고위험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도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입소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의사 소견



에 따라 검사하는 의식 환자는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자로 해제된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병상에서 치료받고 있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지정 격리병상도

해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이어진다.

527개 의료기관에서 양성자를 신고 받아 1주 후 유행 양상 통계를 발표하는 양성자 감시체계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후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의'로 하향이 결정되면, 집계 기관을 줄여 기존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병합해 운영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우려가 여전히 잠재해 있고, 독감(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복지부 노인정책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

남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노인정책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등을 통한 돌봄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특주시책,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600가구 관리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양하고 체계적인 돌봄지원을 위해 2024년에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ICT) 기기를 도입, 24시간 응급상황, 건강관리, 정서지원 등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할 노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